

## 계 열 문 항 1

〈가〉

“애들아, 너희 말을 엿들은 걸 용서해 주렴. 하지만 너희가 바로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피터, 조금 전 고든한테 했던 얘기, 다른 친구들한테도 해 주겠니?”

피터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제가 만약 배우가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 넌 고든에게 최고의 기회를 갖기 위해 미국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있었지.” 루시 선생님이 말했다.

피터는 다시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루시 선생님은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나쁜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줄곧 들려오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허용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 다른 누군가가 너희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말해 주마. 내가 볼 때 문제는 너희가 들었으되 듣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는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듣긴 했지만, 아무도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히 말하건대 난 그렇지 않아. 너희가 앞으로 좋은 삶을 살려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 하고, 그것도 제대로 알아야 해. 너희 중 아무도 미국에 갈 수 없고, 너희 중 아무도 영화배우가 될 수 없어. 또 일전에 누군가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희 중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너희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성인이 되어 중년이 되기도 전에 너희는 기증을 시작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너희 각자가 만들어진 이유지. 너희는 비디오에 나오는 배우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야. 심지어 나와도 다른 존재들이다.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왔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얼마 안 있어 헤일섬을 떠날 것이고, 머지않은 날에 첫 기증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올 거야.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앞으로 좋은 삶을 살려면, 너희 모두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 앞에 어떤 삶이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해.”

루시 선생님은 우리들이 실제 인간을 모델로 하여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태어난 클론이라는 것, 헤일섬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는 것, 기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얼마간 간병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일반적인 기증의 간격, 회복 센터에서의 생활 등 ‘도너’(donor)로서의 운명에 대해 설명했다.

〈나〉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자들은 모두 인간의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야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힘으로 더 뛰어난 학습 능력과 기억력, 강한 근육, 그리고 더 긴 수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을 개조하는 이러한 힘이 사회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생명공학 분야의 문제에 대해 조언해 줄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2004년 《치료의 한계를 넘어》라는 보고서에서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권력에 집착하도록 만듦으로써 사회적 정체를 유발할 것이며, 또 인간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술은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빈부 격차를 더욱 넓혀 분배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주어진 자연적 상태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오만이며,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론할 수 있다. 우선 인간의 능력 강화를 주장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치료와 능력 강화는 밀접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없다.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암 등에 대한 치료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강하는 연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생명공학 연구를 실제로 금지할 수도 없다. 만일 우리의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약물이 발견된다면 세상의 어떤 규제도 그 약의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에는 ‘자유’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인간의 심신을 바꿀 권리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는가, 아니면 국가에 있는가? 민주 사회에서 그런 결정은 각 개인이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독립선언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조물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개선하려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 모두가 지닌 근본적 특징 중의 하나다. 인간이란 종은 지금까지 늘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더 오래 살 방법을 찾아 왔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백신 접종이나 수혈 등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부자연스럽거나 부도덕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새로운 발견들은 종종 우리의 정체성,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관념을 뒤집어엎는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갈릴레오의 발견이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상에 도전하였듯이,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의 자연적 위상에 대한 관념을 바꾸었듯이, 이제 과학은 현재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직면하면서도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고정돼 바뀔 수 없다는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

#### <다>

‘사람-되기’는 종종 ‘동물-되지 않기’로 이해되었다. 동물은 생각이 없고, 말을 못하고, 감각은 단순하며, 자연의 법칙과 타고난 본능에 충실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된다. 문명과 발전의 관점에서 ‘사람-되기’는 그런 동물로부터 뛰어나오는 일이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동물에서 인간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일이었다. 이성의 존재, 말로 하는 정치, 그것이 곧 ‘사람-되기’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동물은 결여의 존재로 표상된다. 동물은 이성이 없고, 말을 못하며, 법과 윤리와 도덕이 없다. 그래서 그것들은 정치도 없다. ‘그것들’은 이름 없는 자들을 부르는 말이었고, 사람이 덜된 존재를 부르는 말이었다. 여자와 아이들과 원주민들과 노예들이 그렇게 불렸다.

이러한 ‘동물과 인간’이라는 구도는 어떻게 해체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동물이면서도 정치적 주체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크 데리다의 ‘짐승과 주권자’ 논의는 ‘동물과 인간’의 생물학적 구분을 정치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짐승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에 의해서 창조된다. 조르조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도 시민에서 짐승으로 환원된 존재다. ‘벌거벗음’이란 시민의 보호복인 법이라는 옷이 벗겨진 자를 의미한다. 두뇌와 영혼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한 마리의 짐승이 될 뿐이다. 동시에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권이 짐승에 의해 탄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 수 있는 자만이 주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도 시민권도 없는 자,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자, 그들이 곧 짐승이다. 짐승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가 없는 모든 무권리의 존재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도 짐승도 아닌 혼성체들이 출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게 된다. 현대 세계의 주권자는 누구이며, ‘시민인 인간’과 ‘짐승인 인간’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아마도 완전한 시민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존재는 이미 인간보다 동물에 더 가까울 것이다.

‘짐승인 인간’에 가해지는 ‘시민인 인간’의 착취 관계를 해체하고 새롭게 관계를 재구성하려면, 그것은 누구의 해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 당연히 가장 최종적인 피착취자, 정치적 최약자들과 무권리자, 가장 동물에 가까운 존재, 동물 그 자신으로부터일 것이다. ‘동물-되기’는 바로 그 동물로서, 동물과 함께 해방되기 위한 모든 동물적 존재의 실천론이라고 할 수 있다.

1. <나>를 통해 <가>의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다>의 논지에서 비판하시오.

(1,000±100자)

## 계 열 문 항 2

〈가〉

“철학자의 성향을 타고 난 사람이 적절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제대로 자라서 온갖 ‘훌륭함’(arete)을 갖추게 될 것이 필연적이지만, 만약에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다면, 어떤 신이 구원해 주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상태에 이를 걸세. 다중(多衆) 자신이 ‘막강한 교사들’이어서, 젊은이거나 노인이거나, 또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자신이 바라는 사람들로 교육하고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언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야 많은 사람이 민회(民會)나 법정, 극장이나 그 밖의 다른 어떤 집회에 떠들썩거리며 모여 앉아서, 발언과 행동 가운데서 어떤 것은 비난하고 어떤 것은 칭찬할 때이겠는데, 어느 경우든 그들은 극단적으로 나가며, 고함을 지르며 박수를 쳐대네. 게다가 주위 암벽이 그걸 올리게 하여 비난과 칭찬의 소음을 두 배로 증폭시키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교육이 그들을 위해서 버텨주어 그와 같은 비난이나 칭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겠는가? 또한 같은 것을 두고서도 아름다운 것이라거나 추한 것이라 말하는 일을 어떤 교육이 막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지 못할 게 다분히 필연적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교사를 자처하는 다중은 말로써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동으로 강제적인 제재를 가하네. 이들은 설득되지 않는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고 있는가?”

“분명히 그런 심한 짓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소피스트가 또는 어떤 개인이 말로써 이들과 맞서거나 제압할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실은 그런 시도조차도 어리석은 짓이 될 걸세. (……)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소피스트들 가운데 누구도, 다중이 모였을 때 갖게 되는 교조적인 믿음(dogma)과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도리어 지혜(sophia)라 일컫는다는 데 대해서 말일세. 이 신념들과 욕망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거나 추한 것인지, 또는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올바르게나 올바르게 아닌 것인지를 전혀 모르면서도, 이 모든 걸 다중의 의견에 따라 이름 짓는데, 이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좋은 것이라고 일컫는 반면에, 성가셔하는 것들은 나쁜 것이라고 일컫네. 그러니 이상한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현대 문명이 전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대의(代議)민주주의 정치도 집단적 평범성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 내의 교육 수준이 낮은 계급의 수중에 주요 권력을 두게 하려는 개혁 시도가 더욱 빈번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전체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민중에게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뚜렷해졌다. 사람들은 자기 계층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기 마련인데, 그런 까닭에 지역 선거구의 다수 득표자들로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는 민중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다. ‘모두’가 아닌, ‘다수’만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교육받은 소수는 대의기구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수한 자가 견해를 발언하는 것과 발언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고대 민주주의에서 유능한 인물은 그 재능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발언할 연단이 개방되어 있었다. 유능한 인물이 공동체를 향해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데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대의제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의 옹호자들조차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같이 유능한 인물이 평생토록 의회에 진출하지 못해서 끝내 나라를 구할 연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만약 단 몇 명이라도 이 나라의 최고 지성이 대의기구 내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비록 나머지 의원들이 평범한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두 명의 최고 지성은 의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뚜렷이 드러내며 긍정적 영향력을 받

휘할 것이다. 이는 대중의 여론과 감정이 최고 지성들에게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민주정체는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다수의 속성에 맞서 소수가 견해를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소수의 견해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좋은 방법은 지역별 다수 득표자만으로 구성되는 단순 대의제에 일정 숫자의 교육받은 소수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다. 지성과 능력을 갖춘 도덕적 세력으로서 교육받은 소수는 의결 과정에서 그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의회가 다수 여론의 압력을 이겨내고 대신 이성과 정의 안에 머물게 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정체의 민중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적이고 인격적인 지도자를 구할 수 있고, 현대 민주주의는 페리클레스같은 우수한 지성으로 구성된 집단에게서 상시적인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 〈다〉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민주주의와 공론조사》(1991)에서 피시킨이 처음 제안했는데, 갈등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찬반 양측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熟議) 과정을 갖게 한 다음에 양측의 의견 변화를 측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피시킨의 공론조사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핵심 요건인 정치적 평등과 숙의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대표성과 객관성을 갖게끔 구성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전문가 설명, 조별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 공론조사는 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견해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민주적인 소통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는 '예외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조사는 크게 네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주제에 대한 1차 여론조사이고, 두 번째 단계는 1차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에서 성, 연령,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토론 참가자(시민참여단)를 선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시민참여단을 한 자리에 모아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강연과 상호 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위해 1박 2일 이상의 합숙이 권장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와 동일한 질문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2차 조사 결과는 정보 습득과 토론이라는 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결과이다. 여기서 도출된 2차 여론조사 결과가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공론조사의 핵심이다.

2.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다〉의 '공론조사'가 〈나〉에서 제기된 문제와 그 대안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한지 평가하시오. (1,000자±100자)